

일본어 한어동사의 용법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辛 碩 基*

(e-mail : zauberssk@naver.com)

目 次

1. 처음에
 2. 한어동사와 非対格性
 - 2-1. 결과술어와의 共起
 - 2-2. 한어동사와 간접수동문 형성
 3. 한어동사와 相(Aspect)의 관계
 4. 일본어 한어동사의 사용실태
 5. 결론
-

1 . 처음에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소위 말하는 漢語動詞라고 불리고 있는 동사류가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1) 破壊する・変化する - 파괴하다・변화하다

이러한 동사는 하나의 한자어 명사(破壊, 變化 등)에 일본어의 경우는 「する」를 결합하는 것에 의해 하나의 동사를 형성하고 한국어의 경우도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어에 「하다」를 붙여서 하나의 동사를 형성한다. 양 언어에

* 건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일본어학

있어서 한어동사의 생성은 매우 규칙적이고 생산적이다.

하지만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는 일견 「する=하다, される=되다」라는 타동사의 규칙적인 대응관계를 지동사에도 적용함으로 인해 간단히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어동사의 사용에 의외로 많은 오용예가 나타나고 또한 학습시간이 많아져도 좀처럼 수정되지 않는다¹⁾.

2) a. はやく経済が安定され、物価が安く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빨리 경제가 안정되어, 물가가 싸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韓, 186p)

b. クラスのなかで一人孤立されていじめられる学生の立場から…。

교실 안에서 혼자 고립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

(学生作文例, 2008.10)

c. 最近、新種フルに感染された友だちが多くなっている。

최근, 신종플루에 감염된 친구가 많아지고 있다. (学生作文例, 2009.9)

d. 日本は経済的に発展された国だと思う。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한다. (都・黄, 100p)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대응관계의 불일치 여부를 보이는 어휘의 조사와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대조연구와는 방향을 달리하여 보다 통사적·의미적인 관점에서 양국어의 한어동사를 바라보고자 한다. 우선, 의미적인 관점에서 「非対格性(unaccusativity)」이라는 개념이 양국어의 한어동사에 어떠한 식으로 동사의 형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 통사적인 관점에서 간접수동문의 형성여부와 相(Aspect)과 한어동사의 결합여부를 살펴봄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한어동사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 한어동사와 非対格性

2장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어동사를 「非対格性(unaccusativity)」의 개념에 비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한일 양국어의 한어동사의 대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어자동사이다. 이 한어자동사는 이하의 예문과 같은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1) 韓先熙. 2006. 「漢語動詞の習得状況について-英語圏話者と韓国語話者を比較して-」 『日本文化學報』 第31輯, 186p.

- 3) a. 彼は病院に入院した。
그는 병원에 입원하였다/*입원되었다.
b. 田中さんはアメリカから帰国した。
타나카씨는 미국에서 귀국하였다/*귀국되었다.
- 4) a. 豪華客船が太平洋で沈没した。
호화여객선이 태평양에서 침몰하였다/침몰되었다.
b. 不景気で所得が減少した。
불경기로 소득이 감소하였다/감소되었다.
- 5) a. あなたの意見は矛盾しています。
당신의 의견은 모순됩니다/*모순합니다.
b. コンピュータがウイルスに感染した。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감염하였다.

상기의 예문을 보면, 한국어 한어동사 중에서, 「입원하다, 귀국하다」 등과 같이 오로지 「하다」의 형태만 허용되는 동사류(이하 그룹 I 동사라 한다), 「침몰하다, 감소하다」 등과 같이 「하다/되다」의 형태 모두를 허용하는 동사류(이하 그룹 II 동사라 한다), 그리고 「되다」의 형태만 허용하는 동사류(이하 그룹 III 동사라 한다)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상기와 같은 한국어 한어자동사가 일본어의 「する」 형태에 대해 3가지 패턴의 대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非対格性」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

影山(1996)에 따르면, 「非対格性」이라는 개념은 관계문법(Perlmutter 1978) 및 변형문법 GB이론(Burzio 1986)의 연구로 발견된 것인데, 「非対格性」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에 <非能格動詞>와 <非対格動詞>라고 불리는 2종류가 있고, 각각의 주어가 통사적으로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非対格動詞>는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심층구조의 레벨에서 목적어를 수반한다고 생각되는 자동사를 말한다. 이 심층구조에서의 목적어가 표층구조로 생성될 때 주어로 표현이 되는데, 심층구조에서는 목적어 상당의 단어였기 때문에 표층구조에서 주어로 표현되어도 대상물로서의 의미가 남게 되어 주어에 의도성(Intention)이 없는 즉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동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는 「-의도성」의 자동사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非能格動詞>는 심층구조나 표층구조 어디에서든 순수한 자동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동사를 말한다. 즉 자동사의 주어에 「+의도성」을 갖고 있는 자동사를 말한다.

影山(1996)가 소개하고 있는 Perlmutter & Postal(1984)에 의한 <非能格動

詞>와 <非対格動詞>의 구별을 이하 표시한다.

<非能格自動詞>

- (1) 의도적 내지 의지적인 행위
work, play, speak 등
- (2) 생리적 현상
cough, sneeze, sleep 등

<非対格自動詞>

- (1) 형용사 내지 이에 상당하는 상태동사
- (2) 대상물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
burn, fall, drop 등
- (3) 존재 내지는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
appear, happen, exist 등
- (4) 오감에 작용하는 비의도적인 현상
shine, sparkle, glitter 등
- (5) Aspect 동사
begin, start, stop 등

影山(1996)는 여기에서 말하는 <非能格自動詞>를 <する형 자동사>로 부르고 <非対格自動詞>를 <なる형 자동사>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非能格動詞>와 <非対格動詞>는 통사적, 의미적으로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하 影山(1996)의 방법론을 빌어 일본어와 한국어의 한어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1. 결과술어와의 共起

다음 예문의 「どろどろに、平らに、びしょびしょに」와 같은 술어를 결과술어(resultative)라고 한다.

- 6) a. アイスクリームがどろどろに溶けた。
- b. 道路を平らにならす。
- c. にわか雨でびしょびしょに濡れた

즉 「どろどろに」는 아이스크림이 녹은 후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平らに」도 또한 도로를 평평하게 한 다음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7) a. アイスクリームが溶けてどろどろになった。

- b.道路をならして平らになった。
- c.にわか雨に濡れてびしょびしょになった。

이렇듯 결과술어와 결합하는 동사는, 자동사 중에서 주어가 「의도성」을 가지고 동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이 없고(「-의도성」)오히려 변화의 영향을 입는(被動) 명사가 주어의 자리에 오는 <非対格動詞>이다.

이에 반하여 다음 예문의 「生で」「裸で」와 같은 말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의 상황이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8) a.アメリカ人は魚を生で食べない。
- b.王様は裸で食事を召し上がった。(影山(1996))

상기의 예문은 먹는 생선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식사를 하는 왕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즉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렇듯 상황묘사술어와 결합하는 동사는, 자동사 중에서 주어에 「의도성」이 있는(「+의도성」)명사가 오는 <非能格動詞>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기의 결과술어와 상태묘사술어가 일본어와 한국어의 한어동사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한어동사 분류의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2-1-1. 그룹 I 동사

이하의 예문과 같이 그룹 I 한어동사는 상태묘사술어만 결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9) a.彼は快く私たちに協力した。
그는 기분 좋게 우리들에게 협력하였다.
- b.金メダリストは堂々とアメリカから帰国した。
금메달리스트는 당당하게 미국에서 귀국하였다.
- c.アメリカのドル市場が目まぐるしく急変している。
미국의 달러시장이 어지럽게 급변하고 있다.
- d.北朝鮮では物価が激しく暴騰している。
북한에서는 물가가 급격하게 폭등하고 있다.
- e.携帯メールが若者の間で広く流行している。
휴대전화 문자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다.

상기 예문의 「快く(기분 좋게), 堂々と(당당하게)」 등과 같은 말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협력하여 기분이 좋아지거나 귀국하여 당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룹 I의 한어동사는 상황묘사술어와 결합하는 <非能格動詞>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의 「する」나 한국어의 「하다」가 기본적으로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룹 I의 한어동사가 <非能格動詞>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다.

2-1-2. 그룹 II 동사

그룹 II의 동사는 일본어의 「する」 형이 한국어의 「하다/되다」와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그룹 II의 동사는 상태묘사술어와 결합하거나 결과술어와 결합하거나 한다. 즉 한국어의 「하다/되다」가 모두 결합하는 형태적인 특징이 그대로 통사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10) a. 子供の言語能力は4、5歳のとき見る見る成長する。
아이들의 언어능력은 4,5세 때 금세 성장한다/성장된다.
b. 入社面接のとき、ぴんと緊張してしまいました。
입사면접 때, 팽팽하게 긴장했다/ 긴장되었다.
c. 韓国はワールドカップのベスト4で惜しくも脱落しました。
한국은 월드컵 4강에서 아깝게도 탈락하였다/탈락되었다.

상기 예문의 「みるみる」, 「ぴんと」와 같은 말은 상황묘사술어로 주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惜しくも」는 탈락한 후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 결과술어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룹 II의 동사는 <非能格動詞>와 <非対格動詞>가 혼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혼재양상을 「하다」와 「되다」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는 형태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3. 그룹 III 동사

그룹 III 동사는 일본어의 「する」 형에 「되다」만 대응하는 것인데, 결과술어만 결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11) a. 知事と二つの職員組合との主張は平行線のまま決裂してしまった。
지사와 두 직원조합과의 주장은 평행선인 채로 결렬되어 버렸다.

- b.船体は2つに折れた状態で座礁している。
선체는 둘로 부러진 상태로 좌초되었다.
- c.川の底が薄汚く汚染している。
강 바닥이 지저분하게 오염되었다.

상기 예문에서 그룹Ⅲ동사와 결합하는 것은 결과술어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렬되어 평행선인 채로의 결과상태」, 「좌초되어 2개로 부러진 결과상태」, 「오염되어 지저분한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룹Ⅲ동사는 <非対格動詞>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한어동사는 <非能格動詞>이든 <非対格動詞>이든 동사의 형태를 「する」형태로 나타내는 데에 반해 한국어의 경우는 <非能格動詞> 즉 「하다(する)」형의 동사는 「하다」의 형태로 나타내고 <非対格動詞> 즉 「되다(なる)」형의 동사는 「되다」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는 동사의 의미적 특징을 동사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非対格動詞>의 주어는 모두 의미적으로 심층구조에서는 「대상물」이고 이 목적어가 표층구조에서는 주어자리로 올라와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사적인 특징은 수동문 생성과정과 비슷하다.

원래 한어타동사의 수동형 동사의 형태가 「되다」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자동사라 할지라도 <非対格動詞>의 주어는 의미적으로 「-의도성」이고, 동작의 변화(영향)를 입는 被動体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는 이렇듯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동사의 형태에 담아내어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한어동사와 간접수동문 형성

일반적으로 일본어는 타동사문에서 직접수동문을 생성할 수 있고 나아가 타동사문과 자동사문에 의해 간접수동문을 생성할 수 있다. 일찍이 三上(1972)는 수동문 형성 여부에 의해 자동사와 타동사의 분류 기준을 세웠다. 우선, 일본어의 동사 중에서, 수동문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能動詞)와 형성할 수 없는 동사(所動詞)로 나눈다. 그리고 수동문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 중에서 직접수동문²⁾이 가능한 것을 타동사로, 간접수동문만 가능한 것을 자동사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三上の 분류를 상기에서 언급한 <非能格動詞>와 <非対格動詞>에

2) 三上(1972)의 용어는 「まともな受身」「はた迷惑の受身」이지만 편의상 각각 「직접수동문」「간접수동문」으로 부른다.

적용하면, <非能格動詞>는 거의 三上の 能動詞에 해당하고 <非対格動詞>는 所動詞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2-2장에서는 일본어 한어 자동사문의 수동문 형성 여부를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한어 자동사의 형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어 한어동사의 (간접)수동문의 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하의 예문과 같이 한어 자동사문이라 할지라도 간접수동문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와 없는 동사가 존재한다.

- 12) a.私は娘に勝手に帰国されて困っている。(←娘が勝手に帰国する)
 b.私は妻に入院されて食事に困っている。(←妻が入院する)
 c.競争会社に新しい分野に進出されてしまった。(←競争会社が新しい分野に進出する)

상기 예문의 「帰国する, 入院する, 進出する」 등의 동사는 그룹 I 에 속하는 전형적인 <非能格動詞>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 예문과 같이 간접 수동문을 형성할 수 없는 동사가 있다.

- 13) a.*私は右足に麻痺されてしまった。(←右足が麻痺する)
 b.*私は妻に雪のなかで孤立されてしまった。(←妻が雪のなかで孤立する)
 c.*私は娘に新型ウィルスに感染されてしまった。(←娘が新型ウィルスの感染する)
 d.*私は船に座礁されてしまった。(←船が座礁する)

상기 예문의 「麻痺する, 孤立する」 등의 동사는 그룹Ⅲ에 속하는 것으로 간접수동문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룹Ⅲ에 속하는 동사는 전형적인 <非対格動詞>인데 「麻痺する, 孤立する」 등의 주어로 표현되는 「右足, 妻」 등의 명사는 이미 의미적으로 행위자(동작자)가 아닌 어떤 동작의 영향을 입는 대상물(피동작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동의 대상물을 동작자로 표현하는 수동문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어 한어동사 중에서 수동문을 형성할 수 있는 <非能格動詞>와 수동문을 형성할 수 없는 <非対格動詞>가 양극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한국어 한어동사 중에서 「する」가 「하다」에만 대응하는 그룹 I 동사(非能格動詞)와 「する」가 「되다」에만 대응하는 그룹Ⅲ동사(非対格動詞)가 똑같이 양극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간에 위치하는 그룹Ⅱ동사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살펴보고자 한

다. 우선 그룹 I 과 그룹 III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수동문 형성에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 14) a.田中マネージャは (有名な) 女優さんに急に蒸発されてしまった。(←蒸発する)
- b.?私は娘に予選で脱落されてしまった。(←脱落する)
- c.??私はセンタ試験で娘に緊張されてしまった。(←緊張する)
- d.*私は船に沈没されてしまった。(←沈没する)
- e.*私は赤ん坊に誕生された。(←誕生する)

상기의 예문(14a)의 경우, 田中매니저가 담당하는 여배우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이라면 가능한 예문으로 판단된다. 예문 (14b)의 경우는 딸이 예선에서 탈락하여 迷惑를 느낄 수도 있어 약간의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가능한 예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문 (14c)의 경우, 가령 딸이 대학입학 시험을 위한 센터시험에서 너무 긴장해서 迷惑를 아버지로서 느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의 비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예문 (14d, e)의 경우는 모두 비문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룹 II의 성격상,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상기의 예문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非能格動詞>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룹 I의 동사를 사용하여 간접수동문을 대개 만들 수 있다. 이는 <非能格動詞文>의 주어는 「+의도성」을 갖는 동작주이기 때문에 이를 간접수동문의 동작주 즉 「に격」으로 마크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非対格動詞>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룹 III의 경우는, <非対格動詞文>의 주어는 「-의도성」의 대상물이기 때문에 이를 간접수동문의 동작주로 세워서 간접수동문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룹 II 동사의 경우는 동사에 따라 간접수동문을 형성할 수 있거나 없거나 하였다. 이는 중간적인 성격의 그룹 II 동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한어동사의 경우, 이러한 <非能格動詞>와 <非対格動詞>의 연속성을 동사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다」로 표현하는 <非能格動詞>, 「되다」로 표현되는 <非対格動詞>이며 두 동사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그룹 II 또한 「하다」와 「되다」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한어동사와 相(Aspect)의 관계

형태적으로 전형적인 대립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룹 I 과 그룹 III에 속하는 한어동사의 상이점으로서 각각의 동사가 나타내는 相(Aspect)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그룹 III에 속하는 동사의 Aspect적 의미를 살펴보면, 동사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동작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거나 움직임이 있다 해도 순간적인 것뿐이어서, 이 때문에 이러한 동사는 「ている」형으로 동작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ている最中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형태와 결합할 수 없다.

15) a. 彼は大雪で孤立している/*孤立している最中だ。

그는 눈속에서 고립되어 있다/*고립되고 있는 중이다.

b. 不正金を隠した秘密の場所が発覚している/*発覚している最中だ。

부정한 돈을 숨긴 비밀 장소가 발각되었다/*발각되고 있는 중이다.

c. 遺跡物が地表近くに埋没している/*埋没している最中だ。

유적물이 지표면 가까이에 매몰되어 있다/*매몰되고 있는 중이다.

d. 今年多くの人が新型ウィルスに感染している/*感染している最中だ。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감염되고 있는 중이다.

e. 彼は市長選挙の候補として内定している/*内定している最中だ。

그는 시장선거의 후보로 내정되었다/*내정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그룹 III에 속하는 동사는 「る形」과 「ている形」의 대립은 있어도 「ている形」으로 「동작의 진행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로지 주체의 「상태변화 결과의 지속상태」만을 나타내고 있다. 소위 말하는 「결과동사」와 같은 의미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룹 I에 속하는 동사는 「ている形」으로 「동작의 진행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16) a. 彼は今アメリカに電話している/電話している最中だ。

그는 지금 미국에 전화하고 있다/전화하고 있는 중이다.

b. A会社は中国に進出している/進出している最中だ。

A회사는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진출하고 있는 중이다.

c. 若い女性の間でミニスカートが流行している/流行している最中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있다/유행하고 있는 중

이다.

d.老後に関する考えが変化している/変化している最中だ。

노후에 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그룹 I 와 그룹 III의 차이는 「동사의 움직임」이라는 의미적 요소가 관계하고 있어서, 그룹 III의 한어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거나 혹은 움직임을 있다고 해도 순간적인 것뿐이어서 「상태동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ている」형으로 「동작의 진행 상태」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그룹 I의 한어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ている」형으로 「동작의 진행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룹 II의 동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하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 I 과 그룹 III의 특징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

17) a.金融危機でアメリカの経済が徐々に沈没している/沈没している最中だ。

금융위기로 미국경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침몰하고 있는 중이다.

b.強い競争相手が登場して緊張している/緊張している最中だ。

강한 경쟁상대가 등장하여 긴장하고 있다/긴장하고 있는 중이다.

c.海水面の温度が上昇している/上昇している最中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d.古い体制は崩壊し新しい体制が誕生している/??誕生している最中だ。

낡은 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탄생하였다.

e.彼は予選でもう脱落している/*脱落している最中だ。

그는 예선에서 이미 탈락하였다/탈락하고 있는 중이다.

f.大企業との大きい契約が成立している/*成立している最中だ。

대기업과의 큰 계약이 성립하였다/*성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II의 동사 중, 「沈没する、緊張する、上昇する」와 같은 동사는 「ている」형으로 「동작의 진행 상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룹 I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 「誕生する、脱落する、成立する」와 같은 동사는 「동작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결과 지속 상태」를 나타내는 그룹III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그룹II의 한어동사는 그룹 I 과 그룹III 동사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그룹II의 한어동사는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룹 I 과 그룹II 그리고 그룹III은 하나의 연속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어 한어동사의 사용실태

일본어 한어동사의 경우, 「+의도성」이 있고 스스로 동작을 행할 수 있는 동작주가 주어로 표현되는 <非能格自動詞文>이든 「-의도성」에 동작주가 아닌 동작의 영향을 입는 대상으로 표현되는 <非対格自動詞文>이든 모두 「漢語+する」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어의 경우는 가장 자동사다운 <非能格自動詞文>은 「한어+하다」의 형태를 취하고 이와는 반대의 <非対格自動詞文>은 「한어+되다」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수동문의 경우, 그 주어는 능동문에서의 대상물이고 의미적으로는 「-의도성」, 「+被動性」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非対格自動詞文>과 통사적, 의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는 수동문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非対格自動詞文>을 「한어+되다」의 형태로 취한다는 것은 수동문과의 유사성을 동사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어의 경우는 전부 「한어+する」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동사의 형태로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문에서의 일본어 한어동사(한국어의 그룹Ⅲ동사)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상기에서 언급한 일본어의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18)a.日本人観光客も50人程度いるらしいです。孤立された人たちが少しでも…。

(<http://nazo-style.jugem.jp/?eid=702>)

b.押し付けた私も悪いのだが、孤立されているあなたから見ると私は…。

<http://plaza.rakuten.co.jp/k1933sunu/diary/200710260000/>

c.これらのストリームが孤立され、プロキシの接続がタイムアウトするまでの…。

(<http://support.microsoft.com/kb/202586/ja>)

d.まず顔面の運動神経が麻痺されて顔の筋肉が動かなくなるのが特徴ですが…。

(<http://homepage1.nifty.com/jibiaka50/ganmen.htm>)

e.麻痺された眼が閉じられない、けいれん大きな口を開いていない場合は、

(<http://www.kenko-times.com/news/1157/>)

f.お子様が新型インフルエンザに感染された場合について…

(http://www.kumamoto.bears.ed.jp/_2362/_2588.html)

g.ウイルスに感染されました！win32ワームに感染してしまって、症状が出る前に…

(<http://okwave.jp/qa/q30602.html>)

h.海南不動産開発の中で不正取引が発覚され、…。

(<http://news.searchchina.ne.jp/>)

- I. 前大統領と国家記録院間の返還協議が決裂された後、…。
(<http://japanese.joins.com/article/>)
- j. 平和的交渉が決裂された事を受け、…。
(<http://wiki.livedoor.jp/raisingheartexcelion/d/>)
- k. 中国株の大暴落で中国共産党政権は転覆されるか、…。
(<http://asyura.com/08/hasan55/msg/658.html>)
- m. 潜在的にそれだけ簡単に転覆されやすい国ということでもあると…。
(<http://takutsubu.blog.drecom.jp/archive/4003>)

한국어 한어동사의 그룹Ⅲ 동사에 속하는 동사는 <非対格自動詞>인데 이들 동사는 형태적으로 「漢語+する」의 형태를 취한다. 의미적으로는 능동문의 대상물이 주어로 표현되는 수동문의 의미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상기에서 지적하였다. 즉 「孤立する」「決裂する」「麻痺する」등과 같은 동사는 <非対格自動詞>여서 그 주어는 의미적으로 「-의도적」「+피동적」이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의미적인 요소를 형태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어의 경우는 「한어+する」의 형태를 취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상기의 예문을 보면 이러한 동사들이 항상 「한어+する」의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없다. 가령, 예문(18a)의 경우, 「～孤立した人たちが少しでも～」라고 표현해야 할 부분을 「孤立された」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른 동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麻痺される」「感染される」「決裂される」「転覆される」등과 같이 「する」의 수동형태인 「される」형을 쓰고 있다. 심지어 예문 (18g)과 같이 하나의 문 안에서 「感染する」「感染される」등과 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일본어의 「한어+する」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문법적인 <非対格自動詞>도 의미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한국어에서 「한어+되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이들 동사를 「한어+される」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한국어 동사 형태와 대조하여 고찰하면 납득이 가는 부분일 것이다. 즉 수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수동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사의 형태를 수동형 동사의 형태(される)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수동적인 의미적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동사에 형태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어 사용자의 의식이 형태적, 통사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언어표현은 유기적인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오용례 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한어동사의 사용이다. 학습자는 타동사 능동형태의 「하다 : する」 「되다 : される」의 대응을 그대로 자동사에 까지 적용하여 오용을 일으키고 있다. 즉 일본어의 「する」 형태를 한국어의 「되다」 형에 해당하는 「される」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일본어에서는 「する」 형태로 모두 표현하는 것을 왜 한국어에서는 「하다」와 「되다」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어 자동사에도 <非能格自動詞>와 <非対格自動詞>가 있는데 의미적으로 수동형 동사에 가까운 <非対格自動詞>를 한국어에서는 수동의 의미적 특징(「-의도성」 「+피동성」)을 동사의 형태에 담아내어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非能格自動詞>와 <非対格自動詞>가 하나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고 그 연속성을 동사의 형태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응양상은 통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일본어의 <非対格自動詞>도 「される」의 형태로 표현되는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非対格自動詞>의 의미적 특징을 동사의 형태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参考文献】

- 生越直樹 (1982) 「日本語漢語動詞における能動と受動-朝鮮語hata動詞との対照-」.
『日本語教育』48号.
- 影山太郎 (1996) 『動詞意味論』くろしお出版. 15p
- 角田太作 (1991) 『世界の言語と日本語』くろしお出版. 63p
- 三上章 (1972) 『現代語法序説』くろしお出版. 104 p
- 吉川千鶴子 (1995) 『動詞の文法』くろしお出版. 202p
- 都恩珍・黄情兪 (2007) 「韓国語の「되다(doeda)」被動文の意味的特徴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の「漢語+する」形に対応する場合を中心に—」 『桜花学園大学人文学部研
究紀要』第9号. 100p
- 韓先熙 (2006) 「漢語動詞の習得状況について-英語圏話者と韓国語話者を比較して-」
『日本文化学報』第31輯. 185p

要 旨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誤用例のなかで一番頻繁に現われるのがいわゆる漢語動詞の使用である。韓国人学習者は他動詞の能動・受動形態の「하다 : する」「되다 : される」の対応をそのまま自動詞にまで適応し誤用を起こすのである。つまり、日本語の「する」形態を韓国語の「되다」形に該当する「される」で表現するのである。

本稿は日本語においては「する」形ですべて表現されるなぜ韓国語では「하다」と「되다」をまぜて使うのかにフォーカスを当てその原因についての考察が目的である。

韓国語と日本語の漢語自動詞にも<非能格自動詞>と<非対格自動詞>があるが、意味的に受動形動詞に近い<非対格自動詞>を韓国語では受動の意味的特徴(「-意凶性」「+被動性」)を動詞の形態で表現している特徴がわかる。韓国語では<非能格自動詞>と<非対格自動詞>がひとつの連続性を見せておりその連続性を動詞の形態で表しているのである。

またこのような対応の様相は通時的に変化するものであり、これらの変化を、日本語の<非対格自動詞>も「される」の形態で表現される例から察せられるのである。日本語も韓国語と同じ<非対格自動詞>の意味的特徴を動詞の形態で表そうとする傾向を確認できたと思う。

キーワード：漢語動詞、アスペクト的意味、非能格動詞、非対格動詞、意凶性、被動性、動詞形態の変化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